

광주시, 690억 투입 황룡강 수생태계 복원 추진

환경부 '오염지류 개선사업' 공모 선정...국비 443억원 확보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등 추진...장록습지 수질개선 기대

광주시가 70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들여 황룡강 수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13일 "환경부 주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공모에 영산강 유입 하천인 황룡강(광주 구간) 수질개선 사업이 최종 선정돼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류에 비점오염저감시설, 하수처리시설 등 다양한 개선사업을 단기간 집중 지

원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 시는 필요사업비 691억원 중 64%인 443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게 된다. 황룡강 광주구간은 미처리 생활오수와 농경지,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유입으로 수질이 점차 악화되고 있어 수질 등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부터 3년간 691억원

을 투입해 ▲송정배수장 유수지 지하저류조 설치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자연기반해법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원 집중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황룡강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수생태계 건강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지난 2020년 12월 도심지 하천으로는 전국 최초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의 보전·복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록습지는 60년 이상 원시상태를 유지하고 멸종위기종 4종을 비롯한 829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지만 평동공단, 마을하수, 도시비점오염 등 수생태계를 약

화시키는 위협요인들이 많아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사업이 정상 추진되면 황룡강 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복원돼 장록습지 생물다양성 증진과 함께 생태 탐방, 체험·교육 등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김석웅 시 환경생태국장은 "영산강 제1지류인 황룡강의 수질개선은 물론 수생태와 친수공간이 늘어나 시민들의 하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하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앙부처 하천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순호 "당당한 구레, 더 강한 구레 만들 것" 구례읍 현충공원에서 구례군수 출마 선언

"더 잘하겠습니다. 당당한 구레, 강한 구레를 만들겠습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13일 오전 전남 구례군 백련리 현충공원에서 6·1지방선거 구례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례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군수는 "당당한 구레, 강한 구레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민선 7기 군정을 수행한 숙성된 행정력을 발휘하고 더욱 더 강력한 업무 추진력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재선 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기회의 땅 구례'에 대한 변화는 군민을 잘살게 만들고, 구례를 전국적인 도시변역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지리산과 섬진강의 자연과 농업 환경을 잘 활용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 손색없는 힐링과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생활과 10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행정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군수로 구례의 변화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며 "구레 전체를 뒤덮었던 엄청난 수마를 극복해온 군민들의 강한 모습은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군민과 함께 연속성 있는 행정으로 확고한 집행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구례의 살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민선 8기 당선과 함께 구례의 4년의 미래 비전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구레 ▲친환경 유기농업 도시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 ▲상권 회복 총력 지원 ▲혁신적인 구레 관광산업 변형 등을 약속했다. 김 군수는 "실력으로 검증된 김순호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면 강한 구레, 군민과 힘을 모아 잘 사는 구레 건설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선거관이 아무리 험악해진다 해도 할지라도 절대로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를 하지 않을 각오"라며 "오로지 비전과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면서도 타인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화합으로 똘똘 강한 구레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 기자

전남도 동부종합재가센터 개소 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요양·긴급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

전남도는 12일 순천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에 재가서비스를 하는 '전라남도 동부종합재가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동부종합재가센터는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번째 시설이다. 지난 3월 말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완료하고 사람과 서비스를 잇는 직접적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는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집에 찾아가 이뤄진다. 주요 서비스는 ▲가사활동을 지원 하는 방문요양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시켜드리는 방문목욕 ▲시설에 일정 기간 보호하는 단기보호 등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부 주간보호센터 내 확

진자 발생으로 센터가 일시 휴관에 따라, 센터에 나올 수 없는 어르신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는 등 돌봄 공백과 사각지대 최소화에 적극 대응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에 대해 긴급돌봄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올 들어 긴급돌봄 수혜자는 코로나19 돌봄 52명, 질병·사고 등 특새 돌봄 29명 등 총 81명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고난도 사례를 가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 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시대 핵심 키워드는 돌봄"이라며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순호 기자

전남도, '남도고택 활용 관광상품화' 추진 영암 구림마을 증가·보성 이진래 고택 등 지역 연계 관광상품 발굴

전남도는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남도 고택의 매력과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과 연계하는 '남도고택 관광상품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도고택과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증대하고, 증가분화를 전남의 대표 관광자원으로서 활용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영광 매간당 고택과 보성 이진래 고택, 영암 구림마을 5개 증가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행사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범상품을 운용했다. 올해는 '남도고택 관광상품'의 고도화를 위해

여행사 공모를 통한 상품 판매, 체험 및 숙박 프로그램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되, 기존 참여 증가 및 관광상품이 가능한 고택을 신규 발굴해 증가별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태영 기자

민주 광주시장 후보 TV토론회 19일 성사 李·姜 신경전 일단락...민주당 컷오프 통과 대상자로 50분간 생방송

방송사 TV토론회 참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용선·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간 토론회가 성사됐다. 13일 광주 지역정가와 방송가에 따르면 KBS광주방송총국은 오는 19일 광주시장 후보 초청 TV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7시40분부터 8시30분까지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KBS광주방송총국은 "오는 14일 예정된 광주시장 후보 컷오프 상황에 따라 참석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앞둔 첫 TV 토론회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예비후보와 강 예비후보간 TV토론

회 참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강 예비후보 경선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모 방송사 2곳이 강기정·이용선 두 예비후보에게 TV토론을 제안했다"면서 "강 예비후보가 TV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힌 반면, 이 예비후보는 즉응은 이유 불응에 양자 TV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측은 "방송사의 토론 참석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뒤늦게 출마선언을 했고 경선일정 등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주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슬비 기자

합평군 공고 제2022-416호

합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공고

합평 간타타 컨트리클럽 골프장(18H) 조성을 위한 합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4일
합 평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합평 간타타 컨트리클럽 골프장(18H) 조성사업
 - 나. 위 치 : 전라남도 합평군 해보면 금계리 산50-2번지 일원
 - 다. 면 적 : 965,322㎡(골프장: 962,860㎡, 진입도로: 2,462㎡)
 - 라. 시행자 : 간타타골프리조트(주)
 - 마.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2. 주민공람 내용
 - 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시설) 결정(변경)(안)
 -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3. 관계도서 : "계제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기간 : 2022년 4월 14일 ~ 2022년 5월 12일(공휴일제외, 20일간)
5. 공람장소 : 합평군청 미래전략실, 해보면사무소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미래전략실 도시계획팀(061-320-15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www.eiaas.go.kr>)에 의견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람(안)은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Media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책임·공정·투명한 슬로리더십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